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영향과 원주민과 시민단체의 대응¹⁾

김윤경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변하고 있다.” 이 말은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고 있는 ‘좌파물결’의 정치적인 변화뿐 아니라, 남미 대륙을 세계시장과 직접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가져온 물리적인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개발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지난 2000년 8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미정상회담에서 주창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이하 IIRSA)은 최근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지형 구조와 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던 카르도주의 주도하

1) 이 글은 『트랜스라틴』 18호(2011년 12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에 남미 12개국이 참여한 IIRSA는 남미 대륙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통합하려는 야심 찬 구상이다. 남미를 10개의 인프라 통합·개발 허브(IDH)로 구분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05년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IIRSA가 남미에 가져온 변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형적·물리적 변화로 도로를 내고 수로와 댐을 건설하고 통신망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변화로, 농촌 주민, 특히 원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탈하고 이주시키고, 그리하여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아마존 삼림을 남벌하여 초래하는 변화이다. IIRSA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로의 효율적인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정의의 문제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IIRSA의 토대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착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진보적인 정부들이 들어선 이후에 IIRSA가 본격화되었는데, 거기에는 자원 착취에 대한 진보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IIRSA가 초래한 물리적 변화보다는 사회적 반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IIRSA가 개발지역 주민, 특히 원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원주민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IIRSA의 영향 하에 있는 원주민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라틴아메리카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IIRSA에 대항하여 원주민들이 내건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자결권(auto-determinación)은 오늘날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II. 진보 정부의 자원 착취와 IIRSA

자원 착취는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원이 풍부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차 산물의 수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우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1차 산물의 공급자로 전락하고 세계경제에 의존적이 되었지만, 이러한 자원 착취에 토대를 둔 경제성장 정책은 진보적인 정부들이 들어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파적인 성향을 지닌 진보적인 정부들이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여 집권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등이 있다. 이러한 진보 정부는 집권 이전에는 전통적인 자원 착취와 1차 산물에 의존하는 수출경제를 비판하면서 1차 산물의 산업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적어도 자원 착취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보 정부가 집권한 후에는 과거처럼 자원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현재 자원 착취는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진보 정부는 탄화수소의 탐사와 개발에 더 호의적이다. 브라질은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광산 개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레아 정부가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볼리비아에서는 새로운 철과 리튬 광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안데스 지역의 채굴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칠레와 더불어 금광 지대인 파스쿠아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광물 자원에 대한 착취 외에도, 진보 정부들은 농업 자원에

대한 착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서는 수출을 위한 단일경작으로 농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유전자 조작을 토대로 대두를 재배하여 상품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단일경작으로 대두 재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농업적인 자원 착취를 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파라과이까지 미치고 있다. 게다가 셀룰로스를 추출할 목적으로 거대한 삼림이 잘려나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원 착취의 결과 고립된 생산지(enclave)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생산지는 생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항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지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같은 수송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고립된 생산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산지와 세계시장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수력발전 댐이나 가스 설비를 포함한 기간 시설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 착취는 단순히 자원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남미 대륙 전체에 걸친 좀 더 거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자원 착취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 IIRSA이다. 자원 착취는 IIRSA와 결합되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다.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의 착취에 적극적인 브라질이 중심이 되어 발의된 IIRSA는, 착취된 자원을 원활하게 세계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IIRSA는 남미 대륙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출의 장애물인 지형적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과 거리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IIRSA는 남미 대륙을 크게 9개 축으로 나누는데, 안데스 축과 남회귀선 축, 파라과이·파라나 축과 아마존 축, 기아나 축과 남부 축, 중부 대양 간 축과 메르코수르 칠레 축, 페루·볼리비아·브라질 축이 그것이다. 이러한 9개 축 모두가 해안 지역을 끼고 있을 뿐 아니

라, 주로 광업과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해 볼 때, IIRSA는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을 외부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 착취는 IIRSA와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자원 착취와 IIRSA는 지리적 분열과정을 일으키면서 많은 긴장과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진보 정부들은 특정 지역을 착취 지역으로 결정하는데, 그러한 결정은 종종 원주민 공동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기존의 공동체 경계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배치 때문에 IIRSA가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에서는 지금도 정부와 해당 원주민 공동체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자원 착취와 이로 인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IIRSA의 허브 중 하나인 페루·볼리비아·브라질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은 IIRSA프로젝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고, 원주민과의 갈등 또한 가장 큰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지역일 뿐 아니라, 특히 페루·브라질 국경지대는 ‘자발적 고립’ 상태로 살아가는 원주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III. IIRSA, 원주민을 위협하다

페루·볼리비아·브라질 축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페루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대륙횡단 고속도로’와 ‘마테이라 강 복합단지’이다. 우선 대륙횡단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이미 2005년에 페루에서 10억 페소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시작되었으며, 이 도로가 완성되면 브라질의 아크레 주와 혼도니아 주가 태평양의 항구와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브라질의 상품을 태평양, 나아가 아시아 시장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반대로 아시아의 상품을 브라질 시장과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들여오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2,570여 km에 달하는 대륙횡단 고속도로 프로젝트에는 도로와 다리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2개 교량 중에서 페루의 아마존 지역의 마드레 데 디오스 강을 가로지르는 빌링우르스트 교량은 아마존 밀림지대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가교로, 이 다리가 완성되면 남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마데이라 강 복합단지 프로젝트는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세 나라의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로, 페루의 남부, 볼리비아의 아마존 지역, 브라질의 북서부 지역을 포함하는 페루·볼리비아·브라질 축의 핵심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마드레 데 디오스 강과 베니 강과 마모레 강과 이테네스 강과 마데이라 강을 연결하여 에너지 생산과 원료 수출을 위한 주요 수송 경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륙횡단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안테스 축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네 개의 수력발전 댐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브라질 혼도니아 주의 산토 안토니오 댐과 히라우 댐이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브라질과 볼리비아, 특히 브라질의 콩, 목재, 광물을 태평양 항구로 쉽게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대두 수출은 500%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생산자인 브라질의 안드레 마키 그룹 같은 기업은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마나우스의 하류 지역의 이타코아티아라 항구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이 '비어 있는' 영토를 점령하여 대두 생산을 늘리고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같은 전략적인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남미 대륙에 대한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관련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먼저, 환경적 영향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의 위험이 있으며, 강과 지류를 막아버림으로써 관련 지역이 습지로 바뀌고 다양한 어종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마테이라 강은 어종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강이다. 또한 아마존의 삼림은 수송을 위한 도로와 교량 건설, 대두 경작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지역의 삼림 130,000 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대두 경작을 위해 더 많은 삼림이 벌목될 것이다.

IIRSA의 환경적 영향은 지역경제를 바꾸고 원주민의 생계수단을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경우, 댐 건설 등으로 목초지가 물에 잠기면서 원주민이 축산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존 지역의 삼림 남벌로 밤 수확이 감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밤나무 숲은 적정한 습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의 아마존 지역에서는 유럽으로의 밤 수출이 아주 중요한데, 삼림 파괴로 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는 말라리아와 수질 오염으로 인한 수은 중독 같은 질병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원주민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의료 시설이 대부분 낙후되었기 때문에 원주민은 이러한 질병에 속수무책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남부 로라이마의 야노마미 원주민 집단은 외부에서 들어온 광부, 선교사, 인류학자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은 최빈곤국에 속하는 볼리비아의 아마존 지역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러한 영향 외에도 개발 프로젝트는 원주민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원주민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륙횡단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페루의 플로르 데 우카야리 공동체의 경우, 원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토지 침탈이 일어나고 있다. 대륙횡단 고속도로가 이 마을을 관통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이 마을에 있는 유전 개

발권을 석유회사에게 이미 허가해주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땅(tierra)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토(territorio)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람과 영토를 불가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토’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주민에게 영토는 사람과 문화를 탄생시키는 모태이며,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IIRSA로 인한 개발 붐이 가져온 토지수탈의 가장 끔찍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2009년 11월 6일 파라과이 동부 지역, 알토 파라나 지방의 아바 파라니 공동체인 이타키리에서 발생했다. 200여 명의 파라니 원주민에게 브라질 대두 생산업자들이 비행기로 대량의 살충제를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브라질 대두 생산업자들은 파라니 원주민이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불복하자, 보복으로 이처럼 잔인무도한 짓을 벌인 것이다. 대두 생산업자들은 원주민 공동체에 공급되는 상수도까지 오염시키며 원주민을 위협했다. 대두 생산업자와 원주민 간의 갈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대두 수요의 증가로 생산업자들의 토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대두 생산자는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국가기구인 파라과이 원주민 기구(Instituto Paraguayo del Indigena, INDI)가 1996~1997년 사이에 아바 파라니 원주민을 대신해서 취득한 토지 2,638헥타르에 대해 대두 생산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자까지 참여했는데, 이들은 파라과이 국경지역으로 대두 재배를 확장하면서 급기야는 파라과이 동부 국경지역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법적인 싸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강제로 원주민을 토지에서 쫓아내기 위해 대두 재배에 쓰는 농약을 공중 살포하기까지 했다. 가히 인간으로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벌어

진 것이다.

이처럼, 토지를 빼앗긴 원주민은 강제로 노예가 되거나 노동자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 더러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마존 밀림 지대 깊숙한 곳으로 도망갔다. 아예 국경을 넘는 원주민도 있었다. 페루·브라질 국경지대의 페루 원주민은 목재업자들이 영토를 침범해 들어오자 국경을 넘어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으로 도망갔다. 고립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살아 온 원주민은 도망간 지역의 원주민, 즉 브라질 사회와 오랜 접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거대 개발 프로젝트들로 인해 이주 지역의 토착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원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원주민은 도시로 나가, 수공업품을 만들어 팔거나 심지어는 길거리를 헤매며 궁핍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대탈주’(exodus)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원주민이 도시의 길거리로 나왔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동체에 버티고 남아 있는 원주민은 언제 쫓겨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원주민에게 재앙에 가까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IIRSA에 대해 원주민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원주민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또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발 벗고 나서서 IIRSA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IIRSA에 대한 이들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V. IIRSA에 대한 시민단체와 원주민의 대응

IIRSA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지역 주민, 특히 원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IIRSA의 프로젝트들은 시민사회나 원주민운동 단체들의 참여 없이 그리고 정부가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IRSA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원주민은 실제로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IIRSA는 세계 자본과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위로부터의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러한 IIRSA에 대해, 우선 시민단체는 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IIRSA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했다. 시민단체는 대부분 환경단체로서, 글로벌 그린그랜츠(Global Greengrants)의 기금을 받아서 IIRSA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으며, IIRSA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정부와 사기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예가 페루의 시민노동연합(Asociación Civil Labor, ACL)이다. 1981년에 창설된 ACL은 IIRSA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싸우고, IIRSA가 환경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에콰도르의 제3세계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del Tercer Mundo, IEETM)도 글로벌 그린그랜츠를 이용하여, IIRSA에 대한 워크숍을 조직하고, IIRSA와 IIRSA가 미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환경연구조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조직하여 자연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했다. 브라질의 '지구의 친구들 센터'(Núcleo Amigos da Terra, NAT)는 IIRSA의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IIRSA가 앞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노력은 결국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는 매년 국제회의를 조직하여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편, 원주민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원주민의 대응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다. 원주민은 생존 기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전협의권(Derecho a la consulta previa)과 자결권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원주민은 IIRSA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자 하고 있다. 그러한 것 없이 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원주민은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조직적인 투쟁을 가장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 제정이었다. 각국 정부는 IIRSA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장애물을 없애야 했다. 그중에서도 외국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법 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남미 각국은 원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는 2009년 4월에 원주민들의 공유지를 분할하고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1015호 법과 그것을 수정 보완한 1073호 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은 외국 자본을 통해서 아마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려고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었다. 아마존 지역 원주민은 이 법이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요구했다. 사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가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더구나 사전에 원주민과 아무런 상의 없이 제정된 법이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개발 및 개발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거부

하자 아마존 원주민은 도로를 점검하고 가스 파이프라인 밸브를 잠그는 등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원주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8월 20일 국회의장 하비에르 벨라스케스 케스켄(Javier Velásquez Quesquén)은 페루 원주민 운동단체인 AIDSESP 지도부를 만났다. 8월 22일 의장은 1015호 법과 1073호 법을 폐지하고, 원주민의 관심사와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논의할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8월 22일 의회에서 찬성 66표와 반대 29표로 1015호 법과 1073호 법을 폐지하는 2440호 법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의 폐지로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주민의 존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에콰도르에서도 IIRSA를 위한 법 개정은 원주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법 개정이 원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2월에 수자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 원주민의 저항이 거세졌다. 에콰도르의 대표적인 원주민운동 단체인 CONAIE와 FENOCIN과 FEINE이 새로운 수자원 법에 반대했다. 이 원주민 운동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수자원권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수자원 관리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결정권을 국가의 수중으로 집중시키며, 광산기업과 기업농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하여 이 원주민 단체는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이 개정안은 2008년에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수자원 이용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물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이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은 물은 사유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원주민은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광산업도 반대했다. 세 번째로 CONAIE는 대기업이 수자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을 관리, 운영할 기구로 대다수 원주민 단체 대표와 소수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 다국

민위원회(Plurinacional Council)의 설립을 제안했다. 결국 2010년 5월 13일 에콰도르 국회 의장 페르난도 코르데로(Fernando Cordero)는 수자원법 개정에 대한 최종 표결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국회는 원주민과 협의를 거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표결을 보류함으로써 발등의 불은 졌다. 하지만 원주민은 더 이상 자연자원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이미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기업과 결탁하여 광산 활동에 필요한 수자원을 정부나 기업이 직접 관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쨌든 원주민의 조직적인 저항 앞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V. 나오며

라틴아메리카에 진보 정부들이 들어선 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자원 착취와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IIRSA는 오늘날 남미 대륙 전체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라는 구호 아래 원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남미 대륙 전체까지 파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주민은 불행하게도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원주민은 IIRSA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IIRSA가 남미의 환경과 주민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비단 라틴아메리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IIRSA로 인한 '세계의 허파' 아마존 밀림지대 파괴가 지구의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의 한 요인이

되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 지역의 시민단체와 원주민의 투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나라의 NGO 단체가 협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그들의 투쟁은 IIRSA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 IIRSA를 추동하고 있는 힘인 신자유주의와 자원 착취에 대한 투쟁이므로 그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다르지만 최근 몇 년간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파티스타의 저항도 자원 착취와 IIRSA에 대한 남미 대륙의 원주민 투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07년 계획된, 밀림지대 개발 프로젝트인 ‘팔렌케 CIP 프로젝트’ 이후 치아파스 주에서는 정부와 원주민 간의 유혈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손을 잡고 ‘새로운 여행 창구’인 ‘마야세계로 가는 관문’을 확보하려고 마야 유적지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라칸돈 밀림지대를 개발하려는 정부의 이 프로젝트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머니의 땅’을 위협하고 있다. 원주민은 삶의 터전과 거기에서 누려온 자치를 지키려고 목숨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브라질의 무토지농민노동자운동처럼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운동과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벌어지고 있는 투쟁 모두가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원주민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Antentas, Josep Maria(2009), “The Madeira River Complex: Socio-Environmental Impact in Bolivian Amazonia and Social Resistance”, *Capitalism Nature Socialism* Vol. 20, No. 3, pp. 12-20.
<http://dx.doi.org/10.1080/10455750903215712>
- Bebbington, A.(2009), “The New Extraction: Rewriting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Ande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45, No. 5, pp. 12-20.
- Claux, Irene Arce(2009), *The Rainforest's Cry: Amazon Uprising and Opposing Perspectives of Development in Peru*. <http://upsidedownworld.org/main>.
- ECUARUNARI(2010), *Manifiesto de la Confederación Kichwa de Ecuador*.
<http://ecuarunari.org/portal/>.
- Escobar, Arturo(2008), *Territories of Difference: Place, Movements, Life, Network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Gudynas, Eduardo(2010), “The New Extractivism of the 21st Century: Ten Urgent Theses about Extractivism in Relation to Current South American Progressivism”, *Americas Program Report*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January 21, 2010).
- Harvey, David(2009), *Organizing for the Anti-Capitalist Transition*.
<http://davidharvey.org/2009/12/organizing-for-the-anti-capitalist-transition/>.
- Hoetmer, Raphael(ed.)(2009), *Repensar la política desde América Latina: Cultura, Estado y Movimientos Sociales*. Lima: Fondo Editorial de la Facultad de Ciencias Sociales UNMSM.
- Killeen, Timothy J.(2007), *A Perfect Storm in the Amazon Wildernes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Context of the IIRSA*.
<http://www.biodiversityscience.org>
- Martinez-Allier, Joan(2004), *El Ecologismo de los Pobres: Conflictos Ambientales y Lenguajes de Valoración*. Barcelona: Icaria.
- Mego, Andrés(2006), IIRSA: Incomplete Integration. *Latin American Press* Vol. 40, No. 7, pp. 1-3
- Pieck, Sonja K.(2011), “Beyond Post Development: Civic Responses to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azon”,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Vol. 28, No. 1, pp. 179-202
- Urquhart, Sam(2009), *The Global Significance of the Amazon Protest*.
www.Countercurrents.org
- Vargas-Hernández, José(2011), “Indigenous Political Ecology Approach to Social Movements in

Mexico and Latin America”, *International NGO Journal* Vol. 6, pp. 133-143.
Wallerstein, Immanuel(2005), “After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What?”, *Social Forces*, Vol. 83,
No. 3, pp. 1263-1278.
Zibechi, Raul(2009), *Ecuador: The Battle for Natural Resources Deepens*.
<http://americas.irc-online.org/am/6521>